

[보도자료] 쿠팡 내 경남 영세 소상공인 상반기 매출, 코로나19에도 137% 성장

2020. 10. 2.



■ ‘힘내요 대한민국’ 2차 기획전 경남 지역 업체 지원

2020. 10. 02. 서울 – 쿠팡과 경상남도의 협력으로 경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쇼크에도 오히려 성장했다. 쿠팡이 발행한 ‘힘내요 대한민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쿠팡과 거래하는 경남 지역 영세 소상공인 매출이 지난해보다 137%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남 소상공인 성장의 배경에는 쿠팡과 경상남도의 협력이 있었다. 쿠팡은 지난 4월부터 경상남도와 협력해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을 열고 코로나19로 판로가 끊긴 중소기업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해왔다.

‘힘내요 대한민국’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지역 업체의 제품을

미리 구매하여 판매를 보장해주는 기획전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각종

해산물, 수산가공식품 등을 산지에서 배송하는 통영의 암테이블 주상현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쿠팡의 로켓프레시로 매출이 오히려 성장했다”며 “쿠팡의 물류인프라 덕분에 우리 제품이 전국에 있는 고객을 만나고, 대기업과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쿠팡과 경상남도는 지난 상반기 성과에 힘입어 ‘힘내요 대한민국’ 2차 기획전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경상남도는 이번 기획전에 예산 1억원을 투입해 고객에게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쿠팡은 추가로 1억2천만원 이상을 투입해 경남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케팅, 광고 활동을 지원한다. 행사 기간 동안 경남 지역 115개 소상공인의 1,100여 개 상품이 전국의 고객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쿠팡은 25일

‘2020 힘내요 대한민국’ 리포트를 발행했다. 리포트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쿠팡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 결과를 조명했다. 지난 4월부터 쿠팡과 지방자치단체는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을 통해 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 2천여 지역 판매자를 지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